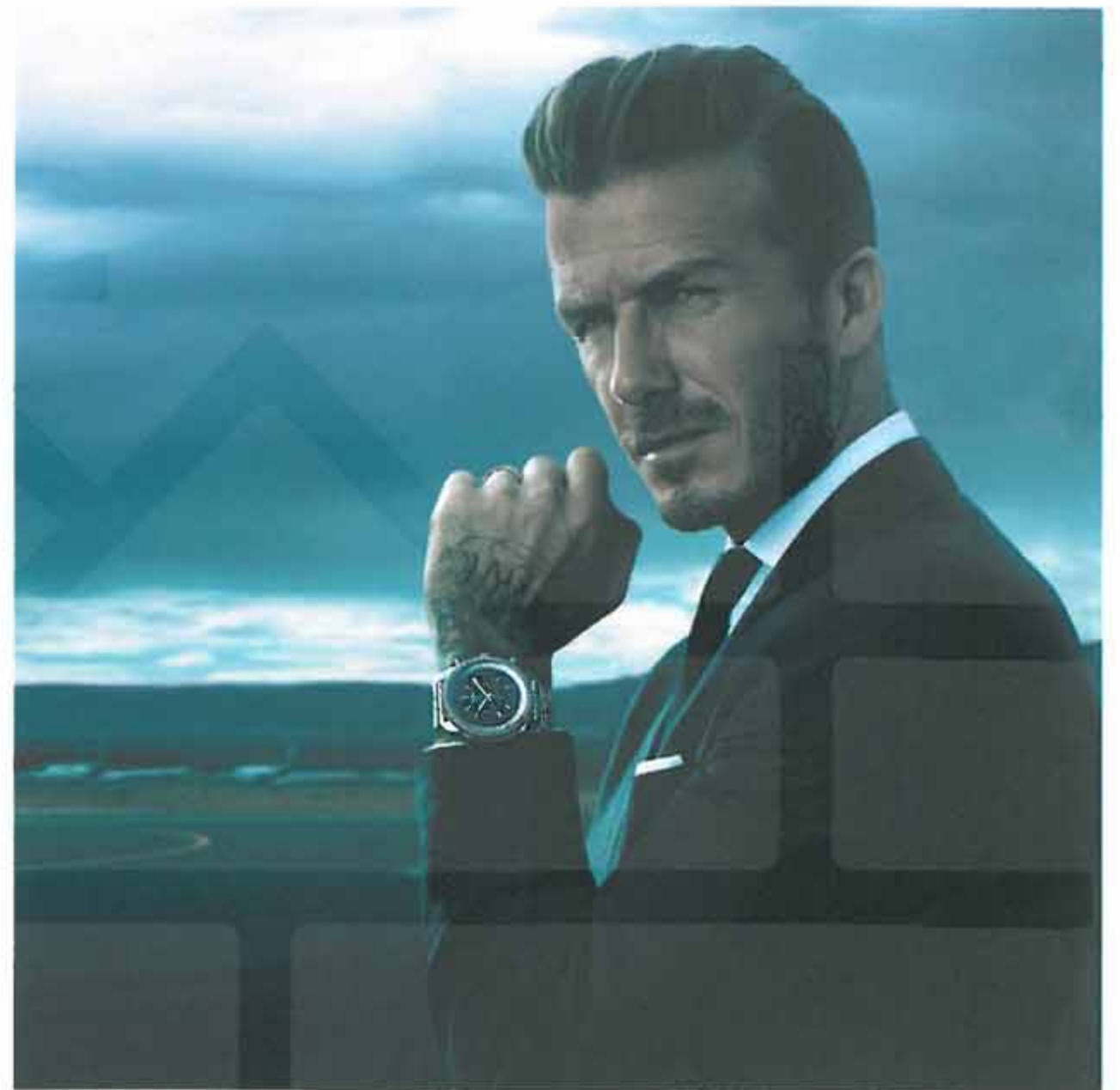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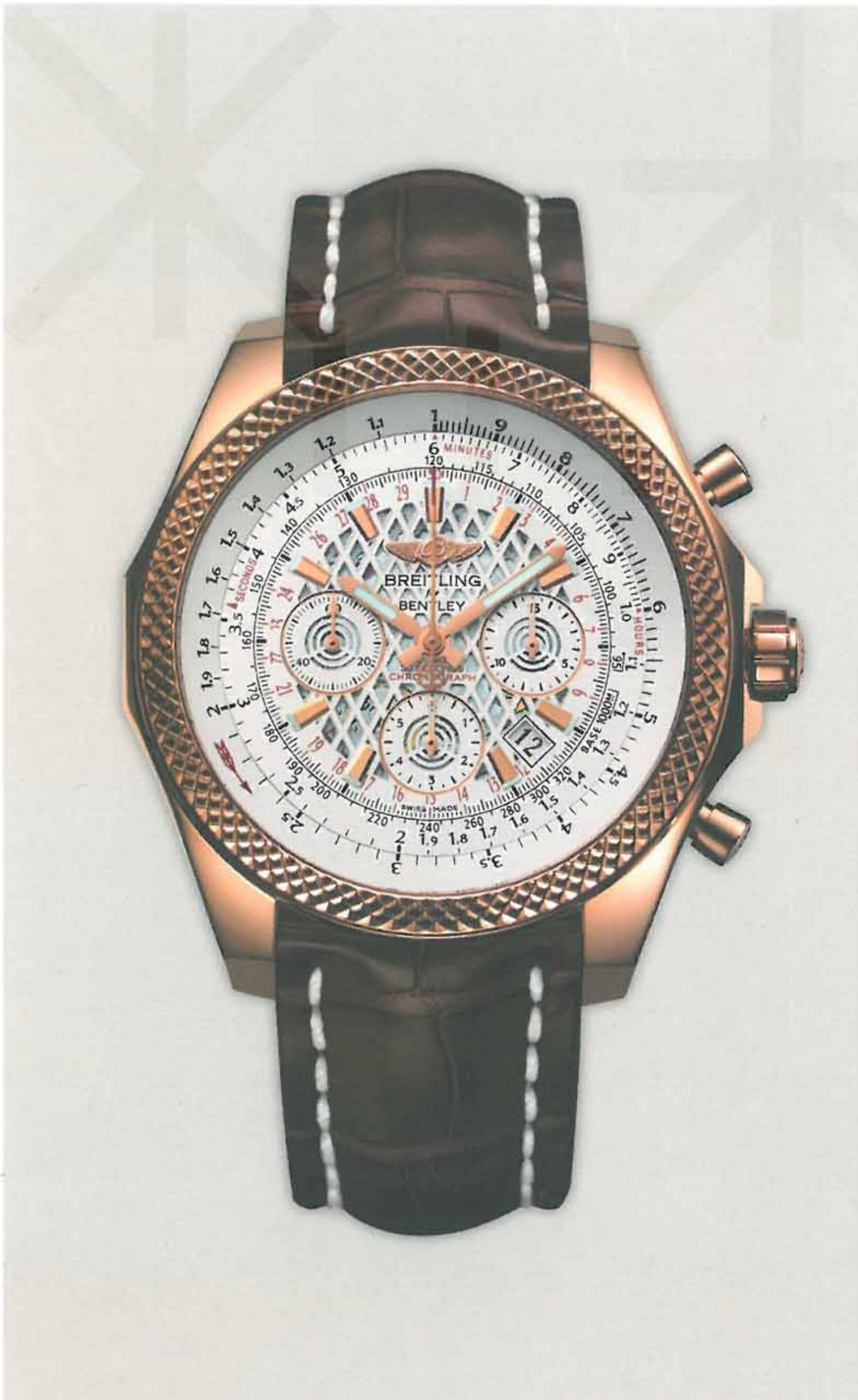


NOBLIAN

THE SHILLA

ISSUE 160 / NOVEMBER / 2013



YOUR BELIEFS



EDITOR AHN SANGHO COOPERATION TAKEOUT DRAWING & MUSEUM(82-2-540-0107)
KUKJE GALLERY(82-2-3210-9885)

*That which is real and unreal will manipulate your inadequate senses.
The unconventional marketing of KIM KIM GALLERY includes
“Douglasism Festival” and Brazilian installation artist Carlito Carvalhosa’s “Sala de Espera”.*

인간의 지각은 상당히 불완전하다. 개인의 경험과 그 경험을 뒤흔들지 않는 합리의 선을 찾는다. 자연적인 것에 대한 인정은 자신이 하는 그 경험과 합리로 기준을 삼는다. 눈앞에 하나의 대상이 있다고 치자. 그것은 진짜이거나 진짜가 아닌 것이다. 진짜가 아닌 것이 꼭 가짜일 리는 없다. 하지만 사람들 대부분은 그 대상이 있다고 믿는다. 보이기 때문이다. 사기꾼은 이렇게 허술한 사람들의 지각 체계를 이용한다. 보이콧, 짝퉁 롤렉스도, 블로거나 심지어 미디어까지도 이런 허점을 집요하게 파고 든다. 인터넷 브라우저에서 검색어를 치고 관련된 링크인 줄 알고 클릭했을 경우 사람들을 낚시질하는 사이트가 화면에 뜰 때의 당황스러움과도 일맥상통한다. 그 애매모호한 사기의 경계 지점을 예술도 탐닉한다.

이태원에 있는 테이크아웃드로잉에서 재미있는 오프닝 컨퍼런스가 열렸다. 김킴 갤러리가 주최하는 행사인 <더글라시즘 페스티벌>이다. 10월과 11월에 걸쳐 서울 각지의 갤러리와 공연장, 공공장소에서 전시와 퍼포먼스, 강연, 콘서트, 영화, 라디오 방송까지 다채로운 형식으로 경험할 수 있다. 김킴 갤러리는 김나영과 그레고리 마스가 공동 운영하는

정형화되지 않은 갤러리다. 특정한 공간을 차지하고 이윤을 창출하는 그런 갤러리가 아니라 그들이 모색하고 있는 바를 가장 잘 보여주는 작가와 공간을 찾아 함께 구현하는 작업을 하고 있다. 큐레이터인 동시에 하나의 전시가 자신들의 작품이 되기도 하는 그런 구조를 갖고 있다. 이번 <더글라시즘 페스티벌>은 김킴 갤러리와 여러 작가가 더글라스 파크라는 저자이자 포퍼먼스 예술가, 기획자인 한 영국의 존재를 대단한 인물로 꾸미는 작당이다. 특히 ‘-주의ism’라는 용어를 통해 한 인간의 삶을 체계화된 이론이나 학설이 된 것처럼 부풀린다. 사실 이 오프닝 컨퍼런스에서 더글라스 파크가 자리에 있었지만, 여러 설명을 들으며 눈앞에 있는 더글라스가 허구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에까지 미쳤다. 그의 정보는 웹상에서도 찾기가 힘들었다. 몇몇 사진과 예술가이자 기획자라는 설명이 있지만, 작품이나 글은 접할 수 없었다. 한마디로 영국에서 그의 영향력이 상당히 미비함을 방증한다. 여기서 김킴 갤러리의 의도가 시작된다. 예술가와의 협업을 통해 흥미로운 작업을 해온 더글라스지만 명성에서는 미약한 그를 ‘비정규 마케팅’ 전략으로 끌어올리는 시도다. 중국에 김킴 갤러리가 의도하는 것은 정치적 뜻

보다 더 강한 의미로서의 문화적 ‘-주의’를 고찰하고, 미술계에 작품의 다양성과 개방성의 극대화를 꾀함이다. 그래서 전 세계 작가 50여 명이 함께하는 이번 전시는 그들의 말처럼 불온하다. 그들은 그 불온한 공기에 감염되는 이들이 더 늘어나기를 바란다. 어떤 의심의 눈초리가 가시지는 않지만 그게 뭐 대수겠는가. 그저 이 작당을 즐기기만 하면 된다.

국제갤러리 3관에는 지금 정체를 알 수 없는 높이 8~12m의 나무 기둥이 벽에 기대어 있거나 벽과 벽 사이를 오가고 있다. 이 뒤엎킨 나무 9개는 전신주다. 여기에서 내 지각의 한계가 드러났다. 사실 전신주는 한때였을 뿐이지 전신주가 아니라 나무다. 그리고 이제는 하나의 오브제로서 용도가 변경된 것이다. 브라질 출신의 설치 작가 칼리토 카르발료사의 작품이다. 그는 야심 찬 조각적 설치와 비디오 작업으로 건축적 공간의 변형을 통해 미묘한 혼돈을 불러일으키는 작업을 해왔다. 우리가 알고 있는 일상의 공간을 재규정하고 있는 것이다. 현재 국제갤러리에 전시된 작품은 그의 대표작인 대기실이라는 의미의 ‘살라 드 에스페라Sala de Espera’다. 그가 만든 대기실이 진짜인지 아니면 진짜가 아닌 것인지는 온전히 당신의 지각에 맡기겠다.

(왼쪽 위부터)

<더글라시즘 페스티벌>, 10~11월, 김킴 갤러리
<칼리토 카르발료사>, 10월 12일~11월 12일, 국제갤러리